

# 산돌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 “불멸의 간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2013년의 꿈과 기대가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생각해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며 우리의 소망의 시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는 경험과 기억과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전해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삶에서 많은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사랑 받은 기억 밖에 없다는 회고였다. 생각해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은 기억, 그리고 즐거운 풍경을 본 기억보다 더 우리의 삶과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경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일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대면하고 그 소중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결국 사랑하는 삶이 소멸을 넘어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말해준다.

가끔씩 제자들이 ‘선생님 감사하다’며 수업시간에 커피와 음료를 교탁에 말없이 갖다 놓는다. 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

려본다. 그 사랑을 헤아려본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자신의 삶과 시간과 생명을 그렇게 표현한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나는 그것을 “불멸의 간식”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나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삶이 더욱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에서 많은 노력을 시도한 한 해였다. 한 제자는 한 학기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이 수업이 인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첫 수업이었다. 4년 동안 신학수업을 들으며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될 줄은 몰랐다.”

2013년은 사랑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생각하며 잘 살아가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참 기적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독일의 지도교수는 『The Works of Love』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2014년은 『사랑의 실재론』(Realism of Love)을 더욱 깊이 다루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계획이다.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 “불멸의 간식”과 같은 -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다. 그 초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더욱 더 매진하자.





■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그 의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괴로움에 관한 시



창세기 27:1 - 14  
히브리서 9:23 - 28  
마가복음서 1:1 - 8

각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죄와 괴로움의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결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뺄면 눈보다 희게 된다는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99.9%의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고 내 죄를 뺄면 지옥 안 가고 천

당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용서 받기 위해서 1년 된 흠이 없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상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면 제사장이 염소를 제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식의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예수의 속죄제사로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 구약성경을 보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내용 중 제사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예수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울 생각이 있으면 꼭 연경반에 3개월 이상 나와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므로 잘못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요건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의 요건은 자기가 죄가 많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며, 자기가 어리석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공감이라고 합니다만, 그 공감이 큰 제사장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한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저야 은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양에 비유해서 예수는 흠이 없다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맥인 예수는 연약한 분이라는 부분을 짝 빼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물인 양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물인 양을 선택하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사장을 택해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뒤섞고 성경을 이리 저리 꼬아서 속죄의 교리를 만들고 다시 그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고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의 문제를 다루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제물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문자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이 이야기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으



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한다.”고 요한복음서에 적혀 있듯이 말입니다.

성경책은 여러 권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한 권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서신이면 바울서신, 복음서도 네 개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결론은 났습니다. 그저 성경은 구약에는 제사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지, 연속성은 뭐고 불연속성은 무엇인지 연구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면 힘들어 집니다. 사랑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했으니 참된 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이 됩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과 관련하여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벨의 형 카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피가 흘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몰라요.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요?”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는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한테 나의 형이 나를 쳐 죽였소’ 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 피는 별까지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괴롭게 산 사람입니다. 아벨의 피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벨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흘려지

면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윤리적 질서는 아벨의 피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발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피를 가진 아벨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피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태까지 이 세계의 질서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데 반해서, 새 언약은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공감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새 질서입니다. 옛 질서는 고발이라고 하는 질서를 생산하고, 새 질서는 용서라는 질서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옛 질서 속에서도, 새 질서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발하는 방식이나, 용서하는 방식이나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괴로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잘못에 용서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비록 우리 인생은 죄가 많으나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해 온 장장 2천 년 동안 이 용서라는 질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아마 교회 초창기에는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질서가 우리가 충분히 알만큼 세상에 구현되지는 않았습니 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발된 새 체계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태까지 누구의 잘못을 보고, 혹은 그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는 감정 문제가 아닌 돈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내가 돈으로 갚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고발하고 저주하고 벌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왔습니까? 아니면 그와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왔습니까? 그 문제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용서는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렸는데 입이 쪽 찢어졌습니다. 기분 무지하게 나빴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면서 천억을 딱 준다면, 기분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풀립니다. 그러니 감정 문제가 아닌 돈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내가 돈으로 갚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 대 쳐봐. 너 돈 많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철학박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고매한 것은 철학자들한테 맡기고, 잘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꾸갠으면, 꾸갠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날 쳤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꾸간 사람이 돈을 갚진 않지만, 갚을 생각이 있고, 갚고 싶어 하고, 갚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벌이가 없어서 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먹살을 잡혀도 꼼짝 못 합니다. 이럴 때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하며 포기하라

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이야기의 시작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니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얼마나 뚝뚝한지 우리가 묻고 싶은 중요한 부분에서 질문까지 해 줍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슨 신학교 선생님들은 일흔 번의 일곱 번 용서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인간이 어떻게 일흔 번의 일곱 번을 용서하냐? 그러니까 인간이지.’ 이렇게 들 말 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서신도 그 맥락이 있습니다. 율법,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잣대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더 이상 죄가 죄가 아니지만,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인간이 만든 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보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가 없으나 사람을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은 사람을 죄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는 사람이 없어도 다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항상 규칙, 법, 도덕, 윤리를 찾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한 인간으로, 낱알의 사람으로, 숨결 있는 사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살면서 사람의 숨결이 느껴질 그 때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를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고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2천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은 옛 질서 속에서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아마도 계속적으로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희은 박용제: 즐거운 송년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보물 서보람: 감사와 희망주제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감사와 희망주제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안부 카톡하고 믿음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감사와 희망주제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카톡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일대일 만남을 하고 차 대접을 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송년모임 가족들 선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매일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나누겠습니다.

한가운 양세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가족모임 송년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가족사진을 잘 올리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가족 송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가족원들에게 감사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새롭님과 함께 아침기도를 매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크리스마스 뷔페 준비와 송년모임으로 가족들과 즐겁게 사귀겠습니다.

요한 조현: 송년모임 선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유 박서연: 화음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어울, 바람님께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요한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매일 아침 호흡기도를 하고 마리아님과 함께 아침기도를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송년가족모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안부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가족들에게 감사의 글을 작성해서 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송년모임 때 가족들에게 감사의 글을 준비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송년 모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송년 모임을 기쁘고 감사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가족 모임 후 늘빛님과 샘물님을 상봉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김강진: 송년 모임 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송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가족 모두에게 카톡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송년모임 짝에게 선물과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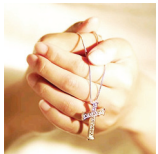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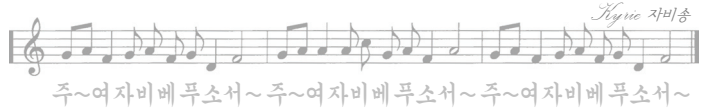
은석 석순화: 송년모임에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송년모임 사진을 홈페이지에 내용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송년모임을 기쁘게 준비하겠습니다.



# 대림절 넷째 주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19편 33-40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택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 첫 기도

주님, 고난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구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  
르게 하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  
치시고, 행하신 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고난 받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1-22 / 23-24 / 25-26  
27-28 / 1-2 / 3-4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  
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89편 1-4절  
소리 내어 천천히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대대로 이어 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고 하였다." (셀라)

###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언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  
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제 272회 : 최종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교연구 (16)



## 바울의 부활이해 (11)

바울이 선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은 ‘펜’이었다. 바울은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의 마음을 채우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의 마음 속에 있게 될 때에 선생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방식은, 바울이 ‘먹물’이라고 표현했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슴 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어 달리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가슴’ (heart of God)이 나의 마음에 채워진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공허한 마음’ 혹은 ‘텅 빈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마음은 ‘텅 빈 마음’이다. ‘텅 빈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므로, 그 마음을 악하다고 말한다.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른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으며, 아무리 강한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만족이 없다. 아무리 매력이 넘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만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안정적으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임종의 순간에 정적들을 어떻게 해치워야 할지를 유언 가운데 남기지 않았던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삶은 물론이고 자기의 삶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길로 갔다. 텅 빈 마음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무저갱’ (bottomless pit)과 같아서, 모든 존재를 괴로움과 죽음 속으로 빨아들인다. 이 점에서 ‘텅 빈 마음’으로 사는 삶 자체는 실상 ‘지옥’이다.

그러나, 사람의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된다. 텅 빈 마음은 사람을 황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공허하게 하지 않고, 만족을 누리게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로 큰 감동을 주는 메시지이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고린도후서 3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왜 성경을 읽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텅빈 마음을 채우려

고 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려고 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우들의 텅 빈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현실이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드러나는 때는 교회 공동체의 성원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이다. 사도행전은 이를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31)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행4:31)



-35)

바울행전이라 불리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은, 바울시대의 교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이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저 주는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분인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과 모든 소유를 거저 나누었다. 이와 같은 삶을 토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역시 큰 은혜를 받았다. 즉,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거저 주는 삶, 마가복음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퍼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한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본 적이 없다. 세상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사회이며,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사회’이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사회라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리고, 이 표징은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점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첫 출발할 때의 모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은 ‘하나님’, ‘영’,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란 표현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바울의 편지에 관한 비유가 단지 몇대기용 비유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 사람이다. 이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나,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나, 그렇게 보이고 들린다는 환시나 환청의 수준이 아니다. 바울은 아주 확신으로 가득 차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7) 돌 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8)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9)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10)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11)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12)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고후 3:6-12)

새 언약은 무엇인가?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새 언약이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머리 속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학입시를 보는 것처럼 잘 요해해서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

다. 아무리, 성경을 잘 요해하고, 백문백답에서 백점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뺄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이다. 이 정도면 ‘불립문자’의 수준이라는 느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이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에 계약서라는 것을 쓴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 알지?’ 하고 계약한다면 어찌될까? 만일 이런 일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살 맛 나는 세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 믿을 수 없기에, ‘갑’과 ‘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공증인까지 둔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에 소속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가 완성되어야, 집 매매나 전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새 언약’ 혹은 ‘새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세상에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문서 위에 문서를 만든다. 즉, 문서를 보증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증문서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보증문서를 보증하는 문서를 하나 더 만든다.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믿을만한 것이겠는가? 좀 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변국의 보증까지 받는다고 해보자. 6자 회담을 해서 보증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증이 되는가? 미국 쪽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힘이 없는 쪽은 무조건 뉘 놓고 당하는 수 밖에 없다. 하다 못해, 서울에서 전세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얼마나 많은가? 전세 보



증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무리, 문서로 작성하고, 그것을 보증하는 문서나 기관의 공증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떠한가? 이것은 약속한 이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더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까닭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더 이상 어떠한 보증도 필요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계약서 같은 문서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어서, 문서로 된 보증 같은 것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받는 개런티, 즉 보증이다. 당신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보증을 받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개런티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믿는다는 것은, 텅 빈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 보니까 믿을 만하다’, ‘수 많은 사람들이 믿는

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나도 믿음이 간다’와 같은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는 엄마를 믿는다’, ‘나는 가족을 믿는다’, ‘나는 빌 게이츠를 믿는다’, ‘나는 버락 오바마를 믿는다’, ‘나는 박근혜를 믿는다’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나보다 낫고, 나는 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다’ 혹은 ‘그들은 나보다 더 세고, 나는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이다. 나보다 나아보이니까 무조건 본다는 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세보이고 나아보이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보이고, 나아보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면,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다’보다 더 직접적인 일치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계열의 서신들은 ‘믿는다’는 표현대신 ‘안다’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한 표현들이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요7:28)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요일4:13)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그 어떤 담보나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

님의 마음을 받음으로써, 그 마음이 직접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수 없이 많은 간증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서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죽음도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서두의 짙막한 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위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고후 3:6c)

두 팀이 있다. 한 팀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있다. 다른 한 팀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졌다. 이 두 팀을 놓고, 바울이 평가하는 것이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말이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나온 깨달음이다. 무슨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온 깨달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음의 문제와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상당한 문자 중독자였다. 즉, 글공부로 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독실한 신앙인이요, 학문으로는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전에 누리던 지식을 뚱으로 여기고 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보니, 문자가 살 길이 아니라, 영이 살 길이더라는 것이다. 글 공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곧 구원임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이 죽음과 생명을 말할 때에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하나



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사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보면 생명이 넘친다는 느낌을 받는가? 당신이 동물이나 식물에 속한 종이 아니라면, 뛰노는 짐승이나 활짝 핀 꽃에서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생명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보면 생명력을 느끼는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이 찌그러져서 사는 사람을 보면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우울한 청년이었을까? 아니면 유쾌한 청년이었을까?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쾌한 청년에 가깝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모습이랍시고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유쾌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은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울하고 근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우울하고 근엄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은 개그 프로그램이나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서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우울한 표정이던 사람들이, TV나 스크린 앞에 서면 금방 얼굴이 밝아진다. 예수님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아침에 거울을 보았는데, 자기 얼굴을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본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쾌

한 예수님을 따라 유쾌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적인 느낌이다.

당신은 거울을 볼 때에, 당신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그래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가? 시체가 웃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밝은 얼굴을 한 시체가 있는가? 무릇 죽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죽는다. 게다가, 얼굴빛도 푸르스름하게 죽어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이 시체와 별 다름이 없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는데, 시체처럼 근엄한 얼굴에, 얼굴빛도 죽어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은 유쾌한 삶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삶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삶은 겉보기엔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렸던 경험이며, 증언이자, 가르침이다.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유쾌하다. 숨통이 트인다.

그런데, 어쩌서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마음이 말을 안 듣는가? 몸이 말을 안 듣는가? 어느 쪽이 더 말을 안 듣는가? 그렇다.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말을 안 듣는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몸이 말을 안 듣기 전에, 마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책만 펴면 수면제고, 숙제만 보면 짜증이 나는데 몸이 움직일 까닭이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나 바울 정도는 되어야 쓸 수 있는 말이다. 나의 몸뚱이를 예수님이나 바울만큼 움직여 본 적이 없으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쓰지 않기 바란다. 마음도 없으면서, 그 핑계를 몸에만 갖다 붙이지 말라.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쩌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간절하게 바랬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원하는 바처럼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마음하고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고 싶어서, 몸의 부활을 소망한 것이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몸의 부활을 소망한 것이다. 그는 몸의 부활을 통해, 그가 받은 마음껏 살고 싶었던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체력은 철인이다. 동서남북 어디나 안 가는 곳이 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바울만큼 마음껏 몸을 움직이는 사람도 드문데, 바울은 그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새로 바꾸고 싶어한 것이다. 이것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바울의 정황이다.

바울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쾌하게 사는 생명’을 다룬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는 까닭도, 교회로 모여서 사는 까닭도, 바로 바울이 누렸고, 증거했던 생명,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끝)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화목 가족

진주님 집에서 8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지난 주 성찬준비 때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고 말해준 교우들에게 감사했다, 다한증으로 체온 조절이 안되어 힘들다, 심한 성대 결절까지 와서 입을 다물고 호흡 기도를 하는데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대기명당 서포터즈로 아이들이 한 주일의 계획을 성실하게 지켜오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사님께 안경을 선물받았다, 결혼식 마치고 성실님이 상봉역까지 태워주어 고마웠다, 산타봉사로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쿠키랑 비누를 나누어 주었다, 올 해 마지막 가족모임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가족원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감사했다, 연말인데도 계속되는 회사 행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자기를 낫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성경에 나와있는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나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에 집중했고 잘 살아야겠다, 식탁가족에게 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

습니다.

## 해냄 가족

은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도신조반 저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믿음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겠다, 초등부 교사회의로 모였다, 함께 하는 교사들이 정말 좋다, 내년에도 함께 하는 학생 초등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사귀고 있다, 교회 근처로 이사한 좋은님이 전화해 주어 믿음의 삶을 나누며 즐거웠다, 인도어로 아이들과 풍성한 먹거리를 나누어 좋았다, 나무님을 생각하며 일대일 만남하러 가며 즐거웠고 반가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예고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핵심이 있다, 성경을 배울 때, ‘왜’라는 질문을 버리고 연경반에 참여하여 열심히 배우겠다, 부활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다, 사촌님 가게를 방문하겠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겠다,

봄님과 통화하겠다, 공동체 식구 3명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열음 가족

드림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대기명당 서포터즈가 되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좋아하며 사귄 생각을 하니 2014년이 기대된다, 요가시험을 치르느라 열심히 몸을 훈련한 한 주였다, 연구와 관련해서 조금씩 진전이 있었던 한 주라 원하던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원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카드를 쓴 일이 좋았다, 아이들과 요리 만드는 인도가 즐거웠다, 여행팀과 카톡방에서 여행계획을 세우며 기대와 설렘이 있다, 결혼 기념일에 생필품과 외식하고 영화보고 즐거웠다, 사내 커플 결혼식에 장애인 근로자들과 참여하여 의미 있었다, 성실님과 일대일 만남이 좋았다, 학사일정이 끝나고 학생들 시험과 성적처리만 남았다, 가족들과 친정 식구들 지인들에게 리스를 선물했는데 좋아해서 참 좋았고, 한해 마무리를 감사표현으로 섬기고 나니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설교나 교리보다는 성경이 위에 있고 성경은 읽어서 모방하

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고 사랑하는 몸으로 고치고 새롭게 변화하도록 잘 배우고 실천하겠다, 힘이 센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이냐,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냐, 텍스트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기도하고 좋은 몸으로 크리스마스 뷔페를 준비하겠다, 편집부 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호호 가족

카라님 집에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들 결혼식과 집 정리로 바빴다, 결혼식 때 교회식구들이 많이 와주어서 잘 치루었다,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환해져서 좋다, 카라님과 여의도 공원에서 겨울 풍경을 맞으며 사귀를 가졌다, 재혼이 결혼식에 참여하며 앞으로 나도 자녀를 떠나 보내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미래를 생각해보았다, 결혼식 가는 길에 은석님이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셨는데 차 안에서의 일상적인 대화가 즐겁고 유쾌했다, 카라님이 혼사를 기쁘게 치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원한 것이 좋았다, 여성중앙





회 행사를 하면서 푸른님의 경영 능력이 돋보였다, 핸드폰과 노트북이 생겨서 호호가족들과 카톡으로 연락이 가능해져서 좋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책을 읽어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년에는 모든 가르침에 앞서 사랑하라는 한가지만 붙들고 살겠다, 식탁가족의 간식을 준비하겠다, 기독교 전반에 문제 해결은 성경읽기이다, 공동체로 살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는 것이 기쁘다, 식탁가족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알고 예수 같이 기도 에 힘쓰며 사랑하겠다, 성찬준비 가족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이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웃는새 가족

빌립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잘 산 것을 감사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습지 선생님과

가스교체 아저씨, 생수아저씨께 인사 한마디라도 더 건네며 기분 좋았다, 교회로 살면서 내 삶이 점점 나아지고, 나의 인격이 성장함을 느끼며 행복하다, 목사님께서 대기명당 아이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주간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자기 목표 점수에 도달하였고 만점도 4명이나 나와 즐거운 대기명당 모임이었다, 드림님과 씨앗님이 새롭게 서포터즈로 들어와 참 고마웠다, 재훈이 결혼식에 오가는 길에 우리교회가 정말 가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좋았다, 아이들끼리 식사하는 모습도 좋았고 대기명당 아이들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도 자랑스러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 해석하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다며 욕심껏 사는 삶을 합리화한다, 내 몸이 사랑하는 몸으로 바뀌길 기도하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신 길이므로 당연히 나도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곧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낮은 데서부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하늘바람 가족

샤론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월요일에 카이조쿠에서 서빙을 했다, 병원 사람들과 회식했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잘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 병원, 조리원, 회사에 백일 떡을 돌렸다, 위통과 몸살이 심해 밤새 끙끙 앓았지만, 연주회를 잘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즐거웠다, 가게 두 군데의 일이 좀 익숙해져서 덜 힘들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달 말에 퇴직할 예정이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 재훈이 결혼식 가는 차 안에서 교우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현실이고 하나님나라의 도래임을 믿고 따르겠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좋아하고 즐기겠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해당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 매일 한가지씩 정해서 사랑을 실천하겠다, 식탁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정오 가족

맑은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무의도식하지 않고 말씀읽기와 기도에 집중하여 좋았다, 논문 심사가 끝났다, 도와 주신 분들과 기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샴브샤브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사귀는 기쁨을 누려서 좋다, 사도신조를 졸업한 사람들과 저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사귀어 깊어져 감사하다, 직원이 허리가 아파 힘든 주간의 시작이었고,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칸타티언습을 해서 좋았다. 인도어 진행으로 아이들과 피자빵과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어 뿌듯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 경고받은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랑실천을 매일매일 하겠다, 근본적인 책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식탁가족에게 후식을 대접하겠다, 즐겁게 동극을 지도하겠다, 5명에게 꾸준히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그리스도로 성장한 한해

화목가족 독립군 이창주



올해 예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어찌되었든 아직도 예가 교인으로서의 첫걸음에서 그리 많은 발걸음을 앞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지 않게 되어 곧 돌이키는 일들이 잦았다. 그리고 주변을 좀 살필 줄 알게 되었고, 내 중심으로만 주위를 보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었다.

올해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얘기하고 자 한다.

올 초부터 야심 차게 참여하였던 홈페이지 구축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하고, 홈페이지를 여셨다. 교우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격려와 가르침을 주셨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낭패감이 묻어 있다.

PC 관리는 작년보다 오히려 편해졌다. 별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 덕분이다.

국악 예배를 돌아보면, 추수 감사절에 정말 답답했다. 추수 감사절이 되기 약 두 달 전에 앞니가 빠졌는데 내가 맡은 대금 이 그 정도로 민감한 악기인 줄은 몰랐다. 추수 감사절 때 국악 예배를 하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아 이러니하게 이제 임시 치아로 앞니를 만든 상황에서 연습해보니 잘 된다.

화목 가족의 예비 인도자를 맡은 지 이제 1년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만 지내다가 처음 맡았는데 인도자이신 미리내님은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그러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홈피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목사님들은 나에게 뭐라 하신 적이 없으셨다. 교회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보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관리부에서 맡은 교회당 PC 관리에 대해 교우들이 감사하다는 말과 격려만 해주었지, 언제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신 적이 있는가.

국악 예배 모임인 예가락의 일원인 내가 추수 감사절 때 큰 실수를 했지만, 교인들은 예배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예비 인도자로서 좌충우돌하면서 들쭉날쭉하게 행동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인도자 역할을 경험하신 어떤 가족은 예비 인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경험담을 들려주셨고, 인도자님은 인도자 그룹협의 시각에 자주 늦는 나에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더 일찍 나와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세상과는 달리 예가 교회에서는 일 자체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신뢰로 서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인 목사님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과묵하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2014년에는 독립군의 새로운 모습, 훨씬 진전된 모습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겠다.



# 예가교회 아이들 &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  우리 아이들 명단이 **홈피와 소식지에** 제공됩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른들은 **개인별로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  지금까지 한 아이당 **유아는 1-2천원, 아동은 2-3천원, 학생은 5천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경우 최저 예산은 어른 한 명당 아이들 선물을 모두 준비하여도 7만 4천원이 됩니다.
-  이렇게 하여, 예가교회에는 한 아이당 큰 선물 보따리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풍성한 선물을 받는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개인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 상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족모임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협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은 10명은 할 수 있는데, 전체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10명은 홍길동님이, 나머지 20명은 사임당님이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배 후에 식사가 끝나고 선물 나누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비합니다.**
-  하루, 미루와 같이 가족모임에 속한 가족원의 아이들은 교회 전체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모임에서 따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당일에 참여가 어렵더라도 가족에서 선물을 모아서 전달하고 선물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실속 있는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족모임 별로 아이들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표는 아이들이 평소애 받고 싶어하던 액수가 큰 선물을 주고 싶은 어른들의 요청이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남자 아이들

### 학생부

양동엽, 홍진표 (고1)  
류지호, 이정우, 양동우 (중2)  
김원식 (중1)

### 초등부

류재현, 김선우 (초6)  
이정안 (초5)/ 이도원 (초4)  
정찬희 (초3)/ 장필 (초2)/ 최하루 (초1)

### 미취학

박민혁, 정근희, 정호현 (7세)  
박민건, 안현수 (5세)  
정준현, 최미루 (4세)/ 안현우(3세)

## 여자 아이들

### 학생부

이지원 (중2)/ 김정인 (중1)

### 초등부

양진아 (초5)/ 김정민 (초4)  
김연우, 정규현 (초2)

### 미취학

장연 (7세)/ 김소율 (4세)  
장산 (3세)/ 김하율 (1세)



기쁜 크리스마스 내  가 선물이 되어봐요  
선물 밑에 안돈다고 써지면 다음엔 선물 없어요



##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 절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땅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예에 힘쓰고, 교우들을 좋아하고 기뻐 하며,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인 교회,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리는 교회를 누리고 전합시다!

2. 크리스마스예배 안내입니다.

2-1.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배가 12월 24일 오후 7시에 있으며, 2시간 전인 5시부터 최종 리허설을 갖습니다.

2-2. 칸타타예배 후에는 사랑의 식탁이 있고, 이어서 학생부가 진행하는 선물 나누기가 있습니다.

2-3. 자정에는 0시 예배가 있습니다.

3.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송구영신 집회와 신년집회가 있습니다.

3-1. 송년기도회는 12월 31일 밤 9시 30분에 모여,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3-2. 1월 1일 0시에는 신년감사기도회와 새해인사가 있습니다.

3-3. 2014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신년집회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3-4.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3시까지는 타임캡슐집회가 있습니다.

3-5.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신년집회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4. 크리스마스칸타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공동식사 후 2시에 모여 4시 30분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주일 정기 모임의 마지막 모임이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목요연경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경반 강의는 자료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연경반 내용을 요약한 문자 발송은 매주 계속 됩니다.

6. 산돌 800호의 '교회'는 어떻게 짜여지는가? '와' 이를 다룬 사경회 강의를 한 번 이상 듣고, 정독하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가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에 교우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또한, 불편 사항이나 요청사항은 '홈피 관리자'에게라는 게시판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9-1. 12월 25일 성탄절 0시 예배위원은 권영아, 최영란님입니다.

9-2. 12월 29일인,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규동, 석순근님입니다.

9-3. 다음 주일 배찬위원은 최영란, 강수진, 박용제님입니다. 예배위원과 배찬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기도와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오늘 성찬대접은 해냄 가족이 대접합니다. 12월 봉헌위원은 김숙정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날짜	성경읽기
월	요엘서 3장 ~ 요엘서 6장
화	요엘서 7장 ~ 요나서 4장
수	미가서 1장 ~ 미가서 7장
목	나훔서 1장 ~ 스바냐서 2장
금	스바냐서 3장 ~ 스가랴서 4장
토	스가랴서 5장 ~ 스가랴서 14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